

로마서 묵상 35
(2/19/2021, 금)

찬양: 191(427)(내가 매일 기쁘게)

성령님의 조명을 위한 기도: 다함께 말씀을 읽고 나누고 묵상할 때 주시는 성령님의 조명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말씀읽기: 로마서 8:14-17

말씀에 대한 이해

그리스도의 영이 내주하시고 그 영에 이끌림 받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의 삶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은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된다.

말씀 속에 담아 주신 메시지

성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9 절에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고 말씀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14 절)고 말씀한다. 믿음으로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 다른 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성도가 가진 또 하나의 정체성을 확인하게 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요한은 요 1:12 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기록했다. 바울은 이 말씀에 더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가르친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그 영에게 순종하며, 그 영의 거룩한 소욕대로 움직이며, 그 영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산다. 그런 사람은 죄악된 육신의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열매, 다른 말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다.

바울은 갈 5 장에서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지 알려준다. 갈 5:22-23 - 22.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23. 온유와 절제니 이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다.

양자의 영. 바울은 성도가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말씀한다. 15 절 -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با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종의 영”은 구원받기 전의 죄악된 상태, 그리고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라고 표현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양자의 영”을 받는다. “양자”라는 말로 번역된 원어의 문자적인 뜻은 ‘양자삼기’이다. 학자들에 따르면 A.D. 1 세기 무렵 로마제국에서 양자를 삼는 것은 매우 흔한 일이었고, 양자는 친자식과 같은 대우를 받음과 동시에 재산을 물려받았다고 한다. 바울은 당시에 흔한 관습이었던 ‘양자삼기’의 개념을 사용하여 본문에서 “양자의 영”이라고 표현하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마치 입양하듯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고 가르치고 있다.

더 나아가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고 말씀한다. “부르짖느니라”는 표현은 ‘크게 외치다’ 혹은 ‘울부짖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어린 자녀가 아빠를 간절히 부르며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연상하게 한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된 성도는 하나님을 “아빠” 혹은 “아버지”라고 부르고 찾으면서 자신의 필요를 간구할 수 있는 특권과 은혜를 받았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자녀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들으신다.

바울은 우리의 양자 됨을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님이라고 가르친다. 16 절 -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의 역사 가운데 증언과 확증의 역사가 있다. 성령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의심이 생길 때 확증해 주신다. 성령님은 조명의 역사를 통하여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신다. 아울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됨을 우리 안에서 증언하신다. 그러므로 성도는 세상에 살면서 믿음이 흔들리고 영적으로 침체에 빠질 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 성령님은 우리를 잡아주시고 확신 가운데 다시 일어나게 하신다.

자녀이면 상속자이다.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복을 언급한다. **17 절 -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양자로 입양된 자녀는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 받는 특권을 가진다. 바울은 당시 양자가 누리는 특권을 가지고 성도가 누리는 영적인 특권을 비유적으로 설명한다. 이 특권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특권이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얻는 성도는 그분과 함께 고난도 받는다는 것이다. 기독교는 결코 영광과 복과 은혜만 말하지 않는다. 참된 기독교 신앙은 기복신앙이 아니며, 번영신학에 바탕을 두고 있지 않다. 진정한 기독교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른다.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며, 십자가의 고난을 통한 영광의 길이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 진리에 근거하여, 성도가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어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씀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당시 교회가 직면한 고난에 의연하게 대처할 것을 권고한 것으로 보인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틀림없이 영광을 얻을 것이지만, 동시에 그리스도께서 당한 고난도 당할 것임을 알고, 담대한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엄청난 영적인 복을 알려 준다. 죄로 인해 멸망 받을 수 밖에 없는 비천한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라고 부르며, 하나님의 모든 유업을 얻게 된 것 이상의 복과 은혜는 없다. 어렵고 힘들 때 낙심 가운데 주저앉지 말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으며 기도하자. 어린 자녀의 간절한 부름을 외면할 부모가 없듯이, 주님은 결코 우리의 부르짖음을 못 들은 척 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듣고 응답하시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의 역사를 허락해 주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의 복을 상속받을 사람들임을 다시 기억하자. 그리고 이 땅에서의 고난과 시련과는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이 주실 복과 영광을 바라보며 위로 받으면서 더욱 힘차게 오늘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더불어 내가 감당해야 하는 십자가와 고난도 넉넉히 감당하며 승리하게 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더욱 담대한 마음으로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내어야 할 것이다.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 주신 말씀을 가지고 드리는 기도, 주신 말씀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함께 나눌 기도제목

1. 하나님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2. 삶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할 때 주시는 놀라운 응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3. 오늘도 세계 곳곳에 파송되어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에게 강력한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옵소서.
4.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께 합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열납되게 하옵소서(시 19:14).